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www.kicce.re.kr	보 도 자 료		
	작 성	담당부서	패널 · 빅데이터연구팀
		담당자	최윤경 선임연구위원(☎02-398-7706)
	배 포	담당부서	출판홍보팀(☎ 02-398-7740)
		일 시	2026년 4월 30일(목)
보 도 일 시	배포 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영유아 보육 · 교육기관 예방중심 안전관리 정책토론회 개최
- 유보통합 시대, 영유아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 방안 논의 -

- < 주 요 내 용 > —
- 육아정책연구소(소장 황옥경)는 2026년 4월 28일(화) 오후 2시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에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이사장 오연주)와 공동으로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토론회는 2025년에 수행한 육아정책연구소 수시과제 「유치원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와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수탁과제 「어린이집 안전사고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 황옥경 소장은 환영사에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안전관리 실태조사 연구를 함께 수행한 어린이집안전공제회에 감사를 전하며, 영유아 안전은 보육과 교육의 신뢰를 지탱하는 기본 토대라고 강조하였다.
 - 이어 유보통합 이행 과정에서 영유아 안전정책의 정합성을 높이고 현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함을 밝혔다.
 - 오연주 이사장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안전은 사회 전체가 함께 감당해야 할 공적 과제라고 언급하며, 예방-대비-대응-사후 개선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 강민규 교육부 영유아정책국장은 격려사를 통해 영유아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토론회는 김나영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 주제발표에서는 영유아 보육·교육기관의 안전관리 현황과 유치원·어린이집 안전사고 동향을 토대로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방안이 논의되었다.

- 최윤경 육아정책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영유아 보육·교육 기관 안전관리 현황 및 체계 구축 방안」 발표에서 안전관리 정책이 사고 이후 대응에서 사고 이전의 위험요인 파악과 관리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유보통합이 진행되는 현 시점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축적해 온 안전관리 경험과 공제체계의 장점을 연계하고, 영유아 안전 데이터 관리, 조사·분석, 행정 협력, 지역사회와 가정 연계를 포함한 통합적 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논의하였다.
 - 김태용 학교안전공제중앙회 대외협력국장은 「유치원 안전사고 동향 및 주요 과제」 발표에서 유치원 안전사고가 교실, 자유놀이, 대·소집단 활동 등 일상적 교육활동 속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학급당 유아 수와 교사 1인의 물리적 한계가 주요 과제로 나타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사고 자료의 체계적 분석, 현장 맞춤형 예방교육, 법률·분쟁 대응 지원과 교사 보호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우현경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안전예방본부장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동향 및 주요 과제」 발표에서 어린이집 안전사고는 영유아의 발달 특성, 일과 운영, 공간 환경, 교사 대 아동 비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하였다. 특히 경미한 사고까지 모두 차단하는 방식은 영유아의 탐색과 놀이 경험을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발달에 적합한 위험인식과 조절을 지원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이어진 종합토론은 김은설 육아정책연구소 기획조정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였다.
- 토론에는 임진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 신미숙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 김현규 서울영림초병설유치원 교사, 김진영 서강어린이집 교사, 채나나 어린이집 3세반 부모, 윤수인 유치원 3세반 부모, 이진화 배재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가 참여하여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의 현장 적용 가능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였다.
 - 종합토론에서는 예방 중심 영유아 안전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인력, 데이터, 교육, 보상체계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참석자들은 영유아 안전정책이 사고 감소에만 머물지 않고, 영유아의 발달권과 놀이권, 교직원의 교육·보육활동 보호, 부모와 기관 간 신뢰 형성, 국가의 공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논의하였다.
- 육아정책연구소는 이번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영유아 보육·교육기관 및 영유아 안전 정책 연구를 지속하고, 유보통합 시대에 부합하는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붙임. 사진 2매.



사진 제공=육아정책연구소 (상단 좌측) 전체 기념촬영 (상단 우측) 육아정책연구소 황옥경 소장 및 어린이집안전공제회 오연주 이사장 (하단 좌측) 토론회 장면 (하단 우측) 토론 장면. (끝).



육아정책연구소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육아정책연구소 패널·빅데이터연구팀 최윤경 선임연구위원(☎ 02-398-7706),
출판홍보팀 김혜진 팀장(☎ 02-398-77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